

제 17회 광주무용제 대상 로얄발레단 '하얀 그림자'



로얄발레단의 '하얀 그림자'가 제 17회 광주무용제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광주무용 협회(회장 정혜경)가 지난 6일 광주문화회관에서 진행한 광주무용제에서 로얄발레단은 광주현대무용단 등 4개 단체를 제치고 영예를 안았다.

현대인들의 감춰진 다양한 모습을 희로애락으로 표현한 '하얀 그림자'는 심사위원들로부터 빛을 매개체로 인간의 양면성을 잘 표현한 안무와 무용수들의 기량이 어우러진 작품이라는 평을 받았다.

'하얀 그림자'는 안무상(오윤환)과 연기상(김치환)도 받아 3관왕을 차지했으며 오는 9월 31일~11월까지 목포 시민회관에서 열리는 제 17회 전국무용제에 광주 대표로 출전한다.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슬픔·환희...수 만개의 표정

김유홍씨 무등갤러리 '2008 얼굴 표정'전



'2008 표정'

서양화가 김유홍씨가 12일까지 무등갤러리에서 '2008 얼굴 표정'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 김씨는 다양한 군상의 얼굴을 담은 '표정' 연작을 선보인다. 코와 이마, 턱을 기형적으로 길게 추상화시킨데다 노랑, 빨강, 파랑의 원색과 검은색을 과감하게 사용해 얼굴 표정을 강조한 작품들이다.

학교 졸업앨범처럼 각 얼굴을 사각의 틀에 담아 배열하거나, 화폭 가득 크고 작은 얼굴들이 서로 어지럽게 엉켜 있는 모습을 표현했다. 겹으로 드러나는 다양한 표정을 통해 인간 내면에 숨어있는 슬픔, 환희, 절망, 욕망, 질투 등의 복잡한 감정을 형상화했다.

신안 출신인 김씨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했고 '새로운 형상 그 모색'전 등 다수의 전시회에 참여했다. 현재 서울 예술의전당 미술교실 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236-252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예술기업' 성공은 '꿈'이었나

공금 횡령 혐의 경찰 수사에 '비틀'

독단적 운영·회계 처리도 불투명

지난해 3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중 예술인 지원사업으로는 전국에서 첫 사업권을 따낸 (사)사회적 예술기업(이하 예술기업)이 수사를 받고 있어 지역문화계가 술렁이고 있다.

현재 경찰은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중이며 "횡령은 사실 무건"이라고 주장하는 대표 A(36)씨는 자신과 관련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B(35)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둔 상태다.

지역 문화계 '술렁'

예술기업은 문화단체 '모나돌'을 중심으로 태동했고 사단법인으로 전환 후 지난해말 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공식인증 받았다. 예술기업은 간병인 등에 국한됐던 일자리 창출 사업의 폭을 예술인들에 확대, 지역 문화 일꾼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다.

▲예술기업의 성과와 한계 사회적 기업은 노동부로부터 직원의 월급(2008년 78만 8천원)과 4대 보험료 등을 지원받는다. 현재 '아름다운

가게' 등 전국 84곳이 운영중이며 문화 관련 기업은 '노리단'과 예술기업 등이 대표적이다.

예술기업은 첫째 95명분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금은 9억 5천200만원. 이중 인건비로 6억 5천만원을 사용했고 나머지는 퇴직금 적립금, 운영비 등으로 소화했다. '지원금'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운영 규정에 따라달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50명 분을 확보한 올해는 1사분기에 3억 8천 900만원을 지원받았다.

예술기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광주 시청의 전국체전 공공미술 프로젝트(1억 9천 500만원), 5·18 부활제 등 3억원. 올해는 함평나비축제 벽화(5천만원) 용봉동 벽화(2천만원) 등의 실적을 올렸다. 반면 수익사업으로 진행했던 식당은 실패했고 소태동 위생매점집 등에 조성을 예정이었던 예술인촌도 운영비가 없어 포기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매끄럽지 못한 회계 처리다. 일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등에서 회사 통장이 아닌 개인 명의 통장으로 돈을 주고 받



전국에서 처음 출범한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 기업인 (사)사회적 예술기업은 예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받았지만 운영면에서 난맥상을 드러내기도 했다. 사회적 예술기업 직원들이 진행한 함평 나비축제 벽화 작업 모습.

는 등 자금 흐름이 명쾌하지 못했고, 시정이 투명한 회계를 위해 도입한 '유리알 카드' 사용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 대표는 끝까지 숨기지 못한 회계 처리 등은 인정하지만 자금의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한 임시 방편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불거졌던 대표의 독단적인 운영도 도마 위에 올랐

다. 기업을 태동시킨 당사자로서의 위치는 인정하지만 총회와 이사회 등의 결 기구와 직원들과의 소통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현재 노동부 지원은 3년 간만 지속된다. 대표 입장에서 수익 구조를 갖춰놓는 게 급선무였지만 수익 사업의 일환이었던 '전라도 가게' 등을 진행하면서 무리수를 봤다는 지적이다. 또 일부 직원들의 월급만 받

면 된다는 무사안일도 문제였다는 자체 반성도 나오고 있다.

▲투명한 회계, 예술인 마인드 전환 수사가 진행되면서 광주시 복구청이 청소년직업사업(2천만원)을 철회하는 등 예술기업은 난관에 빠져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비사업의 생명은 투명한 재정 운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부 등 주관 기관의 꼼꼼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대표 등 특정한 권한이 몰리지 않도록 총회와 이사회 기능의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수성 인정해야"

전문가들은 예술인들의 기업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다. 문화사업은 간병인 사업처럼 즉각 수익금을 회수하는 분야가 아닌데다, 창조적인 작업이 필수 요소를 감안, 노동부가 일반 사회적 기업과는 다른 운영 방침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이다. 또 철저한 감독·감시를 전제로 투자비 등 지원확대도 주장하고 있다.

조국이 반대해지면서 효율성이 사라지고 있는 점을 감안, 일종의 독채 산책을 도입하는 것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예술기업 내 미술인으로 구성된 조형예술국은 나비축제 벽화 사업을 파견고 지산돈의 창고를 임대, 창작·전시공간으로 활용하며 지산돈 예술의 거리 조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직인 A씨는 "창작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환원의 기쁨까지 알게 해준 예술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아쉽다"며 "이번 사태가 예술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연 예술 꿈나무들 광주에 모인다

유네스코 동아시아 어린이 공연 예술제 참가팀 확정

'아시아 예술 꿈나무들'은 한 자리에서 만난다.'

오는 7월 23~28일까지 광주문화회관 등에서 열리는 '2008 유네스코 동아시아 어린이 공연 예술제(이하 어린이 예술제)'의 한국 참가팀이 선정됐다.

유네스코가 동아시아 어린이·청소년들의 국제 친선과 협력을 다지기 위해 해마다 열고 있는 어린이예술제는 각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단체가 출연, 솜씨를 뽐내는 자리다.

올해 행사는 유네스코와 함께 광주시가 공동 주최하며 광주예총이 주관 단체로 참여하고 있다. 중국, 마카오, 홍콩, 일본, 몽골, 북한 등 7개국이 참여하는 이번 어린이 예술제 참가자는 300여명으로 이



광주평화방송 소년소녀합창단

들은 함께 속삭이며 우정을 나눌 예정이다.

지난달 참가 단체 공모결과 한국에서는 전남도립 어린이극악단(이하 어린이극악단) 등 지역 3개, 서울 1개 등 모두 4개 단체가 출연을 확정지었다.

지난 2005년 지역의 국악 꿈나무들을 중심으로 전남도가 창단한 어린이극악단은 짧은 기간 안에 실력을 인정받은 단체다.

어린이극악단은 '2008 광주·전남방문의 해'를 맞아 정기공연을 가졌으며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어린이날 특별공연'과 '함평 세계나비축제엑스포 개막공연' 등 지금까지 50여차례의 공연을 통해 전남문화사절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광주평화방송소년소녀합창단(이하 평화방송합창단)도 참여한다. 지난 1997년 창단된 평화방송합창단은 2006년 중국 서안에서 열린 제4회 세계합창올림픽 '연출이 있는 민요부문' 금메달을 차지하는 등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단체다. 또 정음성국제음악제와 체코필하모니소년소녀합창단 내한 연주회에도 출연했으며 오는 7월에는 오스트리아 그라츠에서 열리는 제 5회 세계합창올림픽에 출연한다.

무용 부문에서는 김미숙하나무용단이 참여한다. 전국무용제 등에서 대들령상 등을 수상한 한국무용가 김미숙씨가 지도하는 김미숙하나무용단은 전통 춤사위를 전래예술이다.

그밖에 서울지역 단체로는 선화예술학교의 리틀엔젤스가 참여한다.

광주예총 관계자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외국 단체들의 공연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참가단체와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조선대 박사과정 임효선씨

독일 IF 디자인어워드 입상



임효선(30·조선대 디자인경영 박사과정·사진)씨가 독일의 IF(International Forum)가 주관하는 'IF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어워드 2008'의 '혁신적인 실현 아이디어' 부문에 'Readot(시각

장애인을 위한 이미지 리딩시스템)'을 출품해 입상했다. 'Readot'은 시각 장애인이 영상물을 만져볼 수 있도록 사진을 색만 짚은 뒤 점자식으로 나타내는 시스템이다.

임씨는 "상용화가 된다면 시각장애인들이 가족 사진, 예술 작품 등을 점자로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모에는 5개 분야에 16개국에서 1천 300여점의 작품이 출품됐다. 주최측은 입씨를 포함한 30명의 입상자를 먼저 뽑은 뒤 이를 가운데 오는 8월 29일 독일 뮌헨에서 분야별 대상자를 선정, 시상할 예정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Happy Time 영화안내' featuring a grid of movie listings for various theaters including Mega Box, Enter Cinema, Columbia Cinema, Seneca Grand, Hami Cinema, and Zeil Cinema. Each listing includes movie titles, showtimes, and prices.